

현빈, 그랜저 1호 유니세프에 기증



현대자동차는 신형 그랜저 홍보대사인 배우 현빈이 유니세프에 자신이 타던 신형 그랜저 1호차를 기증했다고 6일 밝혔다.

현빈은 자신의 군 암대로 7일 이후에는 그 차를 더이상 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좋은 일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기증을 결정한 것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빈이 기증한 신형 그랜저 1호차는 앞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업무용 의전차량으로 사용된다.

문소리, 건국대 영화전공 초빙교수 임용



건국대(총장 김진규)는 배우 문소리(37)씨를 예술학부 영화 전공 초빙교수로 임용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문씨는 이번 학기에 4학년 전공 과목인 '연기고급1'을 강의하게 된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영화 현장에서 활동하는 연기자의 생생한 강의를 원했고 의견을 물은 결과 문씨를 1순위로 뽑아 교수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대 김경희 계장 교과부장관 표창



조선대학교 입학처 김경희 계장이 최근 201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업무추진 유공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장을 받았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영역 확대를 통한 고교 교육 정상화에 힘쓰고, 학과 특성에 맞는 담임학년 능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수능 특정영역 우수자 특별전형 신설 등을 통해 대입전형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다.

문대식 현충시설 알리미 위촉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은 지난 3일 청사 회의실에서 고문사문 애국지사의 장남이자 국립 광주박물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대식씨를 현충시설 알리미로 위촉했다.

인사

◆동강대학
▲교무입학지원처장 배종균 교수 ▲신학협력지원처장 편서범 교수 ▲학생복지지원처장 정국영 교수 ▲평가기획실장 유철수 교수
◆장수군
▲재난안전과장 김광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동수 ▲건설과장 직무대리 장기정 ▲계남면장 직무대리 김성수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텁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알림

▲이상열·박효숙씨 장남 병률군 이한성(송원고 교사)·최수복씨 장녀 슬기양=12일(토) 오전 11시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현성권(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무국장)·정해자씨 차남 대웅(전남대 병원의사)군 정해석(KT 상무지점 팀장)·김정자씨 장녀 수영(광주 삼육중학교)양=13일(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정병섭) 월례회=7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밝은 눈과 건강한 심장 선물합니다”

‘사랑의 1004 운동’ 평는 조영조 농협 광주본부장

‘사랑의 천사(1004) 운동’이 시골 어머니의 마음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피어나 소외된 이웃의 눈을 뜨게 하고, 건강한 삶을 갖게 하는 희망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천사 운동’을 평는 조영조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지난 4일 발대식에서 “사회가 다변화하고 농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어려운 이웃도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과 상생하고 나누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협동조합 정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사랑의 천사 운동’은 광주지역 농협 가족 16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004만 원’의 성금을 모으면,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개인수술과 심장수술 등을 지원해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나눔과 상생 운동이다.

농협 광주본부는 올해 ‘천사 운동’을 10차례 실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1억여원의 성금을 모아야 한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1월 25일 승진과 이동으로 축하 난이 들어온 것을 직원들에

게 경매해 114만원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폐지 판매대금, 업적 우수 시상금, 강사료 협찬, 인사발령 전벌금, 돼지저금통 털기 등을 통해 모금했다. 또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급여 끌전 모으기’나 ‘1004원 모으기’, ‘고객과 함께하기’ 등 다양한 운동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날 발대식까지 모은 성금만 이미 1004만원을 훌쩍 넘긴 1190만원이다.

농협 광주본부는 조만간 ‘(가칭)사랑의 천사 운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수혜자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행위원회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조합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자체·사회복지단체가 함께 참여해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심장재단·안과·치과 등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천사운동의 의미와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비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 수혜자들과 한마당 축제로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모금 과정 및 치료 과정 등을 향면 다큐멘터리 동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할 방침이다.

조 본부장은 “우물은 파내며 퍼낼수록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듯 ‘사랑의 천사 운동’도 곳곳에서 샘솟듯 솟아나 지역 사회가 더욱 밝고 명랑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경험 밑거름으로 상생 조타수 될 것”

남부원 신임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광주시민들에게 감동했습니다. 광주에서 받은 큰 사랑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광주YMCA에서 3년 8개월동안 광주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일했던 남부원(53) 제23대 사무총장이 한국YMCA 전국연맹 신임 사무총장으로 지난 2일 취임했다.

남 사무총장은 “광주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연맹 사무총장에 선정된 좋은 밑거름이 된 것 같다”며 “전국 64개 YMCA가 시대정신에 맞게 한 방향으로 가도록 조타수(操舵手)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 사무총장은 취임 해결과제로 ▲시대정신에 맞는 이념과 방향 설정 ▲활동가들의 지도력 훈련 ▲지역 YMCA의 역량 강화를 꼽았다. 특히 시대정신을 ‘상생’이라고 표현하며, 생태계와 인간, 계층간, 세대간, 보수와 진보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1인의 100보 보다 100인의 1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맹체인 YMCA는 항상 합의하고 협력해 지역과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양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전남행복발전소 이명자·유용상 공동대표 선임



구축하고, 신 바람나는 지역 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자 대표〉 〈유용상 대표〉 유용상 대표는 “우리 나라 의료체계를 과학화, 합리화 체제로 개편하고, 국민 건강보호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의 국민운동을 조직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현직 총장들이 말하는 ‘대학은 이런곳’

김윤수 전남대 총장 등 ‘새로운 대학을 말하다’ 출간

김윤수 전남대 총장(사진)을 비롯해 주요 대학 총장 21명이 최근 ‘새로운 대학을 말하다’(매일경제신문사, 2011)를 출간했다.

실제 대학 교육의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고민하는 전·현직 총장들이 교육과 강의·연구·재정·입학 사정 관계 도입 그리고 사회봉사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혁신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해 자신의 생각과 고민, 혁신방안을 풀어놓았다.

김윤수 총장은 대학 개혁과 관련해 “대학이라 해서 경쟁의 울타리 밖에서 머무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며 “대학의 혁신은 학과 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 본래의 정신, 즉 진리 탐구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총장은 또 “대학이 잘 가르치고, 교수가 잘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학생들이 똑똑해서 스스로 알아서 미래를,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 주



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 괴력하며, “대학교육이 종체적 부실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우리는 학습자에게 어렵더라도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외국의 연구 성과를 수입해 전달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함께 나누는 진지한 인간애를 얼마나 밟았는지, 예비 기득권층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방행정 33년 조재환 장평면장

‘행정에도 공식이 있다’ 책 폐내

지방행정 한 사무관이 33여년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학위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행정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주인공은 장흥군 장평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재환(52) 행정사무관. 조 면장은 지난 78년 9급으로 장흥군에 임용된 이후 본청과 읍·면 등에서 일반 행정분야에서 기획·재정과 공직자 마인드 제고에 이르기까지 행정 정수만을 꼽아 책으로 엮어 냈다.

책에는 ▲행정이라는 무엇인가(행정은 사회현상을 다루고 행정에 기업원리가 가능하다) ▲기획 분야로 기획과 재정의 상관관계 ▲재정분야는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과정 ▲조직관리 분야로 ‘우

리는 직업공무원이다’ ▲행정용어 해설(벤치마킹, 모래토리엄, MOU) 등 총 210페이지에 다양한 행정경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조 면장은 전남대와 호남대로부터 행정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 현재 초당대 겹교수와 광주대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으며, 지난 97년에 ‘지방 재정효율성 제고방안’과 2001년에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삼가故人の冥福을 빙니다’弔

故 이정님(남/71세)

子/女 : 이형영 / 고양주

女婿 : 이복민 / 김성열, 허민, 문민 / 최길영

• 호실201호 • 남편 : 3월 7일 • 장지 : 남양월산선영

故 대경호 님(남/61세)

子/女 : 조재호 / 김진영

女婿 : 김명진 / 김현수

• 호실102호 • 남편 : 3월 7일 • 장지 : 영락공원

마음까지 편 안한

문의 (062)227-4000

故 유희숙 님(여/89세)

子/女 : 윤원중 / 구현지

女婿 : 윤영자 / 조순형, 순남 / 이경래

오현 / 윤호영, 육한 / 정호선

하빈 / 김재진, 덕희 / 정내현

• 호실201호 • 남편 : 3월 8일 • 장지 : 영락공원

故 이준석 님(남/71세)

子/女 : 임경숙 / 김현경, 임민수

女婿 : 김정호 / 김현중, 김현수 / 김현숙, 김현숙

• 남편 : 3월 10일 • 장지 : 인천시

404호 • 연락처 : 02-574-4407

故 윤금순 님(여/81세)

子/女 : 이민수 / 이민숙

女婿 : 오현우 / 정길동, 풍례 / 정현숙, 정현숙

• 남편 : 3월 8일 08:00분 •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50-4406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062)250-4455

故 윤명례 님(여/80세)

子/女 : 오간기 / 이이모사 / 남기 / 이인철 / 윤현수 / 윤기

우연 / 정길동 / 풍례 / 정현숙 / 정현숙 / 김현숙

• 남편 : 3월 8일 09:00분 • 장지 : 남원군 벽면 산양

404호 • 연락처 : 250-4410